

새로운 砲兵裝備

韓俊譯

現在美陸軍이 당면하고 있는 戰術上의 큰 문제의 하나는 歐州 및 아시아를 통해 그 主要地域에서 소聯軍의 數와 組織 및 裝備와 訓練에 있어 우수한 機甲勢力を 갖고 對峙하고 있는 일이다.

소聯陣營의 공격력은 확실히 우세하다고 보며 裝甲化, 機械化의 어떤 것으로든지 소聯軍師團은 우세하다. 현재에도 각各 人員과 裝備를 현저하게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T-72戰車와 BMP裝甲人員輸送車의 數的, 質의으로 증강됨에 따라 美國側이 과시해온 優位는 무너지고, 高性能을 갖인 MiG-27, Su-19와 같은 戰術空軍力의 存在도 명확해졌다.

과거의 戰鬪에 있어서는 集中火力을 數없이 敵에게 사격함으로써 압도하여 왔다. 第2次 世界大戰, 韓國戰爭, 월남戰爭에 있어서도 野戰砲兵은 공격에서 인기가 있었다.

對抗하는 敵에 대하여 하루종일 또는 날씨에 관계없이 世界에서 뛰어난 技術力과 集中度를 갖인 野戰火力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10年동안 砲兵力이 對소에 있어 그 優位의 立場이 모호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딘가에 効率的인 결합보다는 攻擊力과 防禦力과의 對比에 변화라고 하는것이 알기쉽다.

元來 砲兵의 사격은 원거리의 移動目標에 대해 효과가 적은 것이지만 이것은 裝甲의 향상으로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砲兵의 步兵攻擊은 주로 爆風과 砲彈의 破片效果에 의한것 같지만 아래 대항하여 裝甲이라는 것이 고려되었다. 近年에 一般陸軍에 채용되어온 APC 裝甲人員輸送車化한 것이 이것이다.

소聯陸軍이 이러한 경향에 앞선 것은 물론이다. 현재 소聯軍步兵은 第2次 世界大戰에 간이 거르면서 集團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BMP 또는 BTR라고 한 APC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直擊彈 이외는 안전하고 機甲師團에서도 충분한 APC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裝甲車輛은 自走力を 가지고 있으므로 野戰砲兵의 공격을 교묘히 피할 수 있고 전연 새로운 兵器를 사용하지 않는한 砲兵力으로 상대방의 步兵과 戰車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

多幸이도 이들에 對抗할 수 있는 兵器가 개발되어 사용하는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종래에 陸軍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간의 研究프로그램의 成果를 組合하고 사격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結果를 얻어 왔다. 이것은 새로운 兵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火砲에다 다소의 개량으로써 새로운 彈用으로서 活用하고자 하는 것이다.

現用의 155mm自走榴彈砲 M109와 8인치 自走榴彈砲 M110은 현재 美機甲師團의 主火器이다. M109의 A1, A3 및 M110의 A1, A2은砲身을 다소 延長시키므로서 射程延長을 꾀한것이다. 歐洲에서는 이들 M109에 대하여는 변경되었고改良된 것과 되지않은 것도 같은 口徑의 새로운 彈이 射擊可能하게 되었다.

종래의 火砲를 이용하여 새로운 彈(ICM)을 발사하는데 砲側의 兵員에게 새로운 能力과 어려운 訓練을 할 필요는 없다. 즉 새로운 火砲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兵員을 訓練시킬 필요없이

新型彈藥의 生産 및 展開를 실속히 행하므로서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로운 能力과 射程延長을 한 兵器가 도입되므로서 小型의 多目的 計算機를 飛行體 誘導를 위하여 준비하여야만 된다.

新兵器 CLGP誘導砲彈을 소개하기로 하자. 이것은 移動目標에 대하여 정확한 命中度를 표시하고 있다. 155mm 榴彈砲用 誘導砲彈 “Copperhead” M712은 火砲에서 발사되는 세미아티브·레이저誘導의 砲彈이다. M712은 현재 量產에 들어가고 制式의 火砲를 改造없이 발사할 수 있다.

Copperhead는 砲手에게 특별한 教育을 할 필요가 없다. 砲側의 兵員은 他의 155mm 榴彈과 같이 信管을 셋트하고 裝填, 발사하면 된다.

그러나 彈으로서는 다소의 조작이 필요하고 制式砲彈과 같이 高速旋回가 되면 成形炸藥의 彈頭效果가 감소되므로 이것을 약하게 할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砲腔內의 腔綫에 의해 正規에 旋動이 되지 않도록 약하게 하면서 回轉可能한 特別彈帶로 되어 있다.

彈帶는 螺線型에 의해 回轉力を 받으면 弹帶上을 미끌어지게 설계되어 있고 腔綫이 弹帶에 주는 영향을 감소한다.

Copperhead는 발사되면 加速度에 의해서 電波가 起動되고 고세미아티브·레이저探知部와 制御翼에 電力を 공급한다. 弹體가 砲口를 이탈하면 安定用 및 誘導用의 翼은 자연히 뛰어나와 펴지고 通常의 弹道를 따라 所定의 目표방향으로 날아간다. 弹道頂點에 달하여 아래쪽으로 向하기 시작하면 목표지역은 그 視界에 들어온다.

이때 Timer는 레이저探知器를 始動시키고 목표지역내의 走査를 개시하고 먼저 기억시켜둔 레이저광선의 周波數와 펄스波形의 발견과 선택을 한다.

FOT(砲兵前進觀測班)은 물론 目標可視地點까지 前進하고 있고 望遠鏡과 指示器에 追尾裝置를 이용하여 破壞目標를 選定하여 두고 不可視레이저指示器로 照射하여야만 된다.

Copperhead의 檢知器는 指示된 목표물을 포착한다. 동시에 誘導裝置은 목표에 명중시킬 彈

道를 계산하고 彈을 목표에 유도한다.

M712은 通常의 氣象條件에서는 照準點에서 直徑 3,000m 이내에 지시된 목표가 誘導可能하다. 誘導와 操舵裝置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레이저指示器의 Spot가 목표상에 있으면命中率은 극히 정확한 것이다.

155mm 또는 8인치砲의 HEAT彈(對戰車榴彈)이 直擊할 경우 世界各國에 존재하고 있는 裝甲車輛으로서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동시에同一地域내에서도 波長을 변화시키면 많은 FOT의 指示器 照射의에 헬리콥터, 一般航空機, 또한 RPV(遠隔操縱機)에 의한 照射도 생각된다.

試驗結果는 대단히 좋았다. 公表된 일부로는 155mm XM712 CLGP은 自重 138파운드, 最大射距離는 16,000m이다. 시험은 정지 및 이동하는 戰車에 대하여 4,000m, 8,000m, 12,000m 및 16,000m의 사거리에서 보기좋게 명중했다.

특히 明暗에 대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레이저照射는 小型 RPV 및 고브라 헬리콥터에 의해 모두 성공하였다.

이 Copperhead 레이저照射方式에는 戰術적으로 많은 잇점이 있다. 指示光 및 레이저照射點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

또한 閃光, 연기, 소리 등이 일체없다. 따라서 레이저光線의 照射場所에 발견은 곤란하다. Copperhead를 발사하는 火砲는 수천m의 後方에서 間接照準射擊을 한다. 그러므로 敵에게 발견 또는 반격 당하는 일은 없다.

對戰車誘導彈의 TOW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자. TOW는 발사의 란자 및 사수가 交戰하는 敵의 照準線內에 있어야만 된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로켓모우터에 의한 閃光 및 爆風이 있어 용이하게 발견된다.

만약에 戰車가 미사일 란자에서 2,000m 이내에 있다고 하면 戰車砲로 즉시 반격할 수 있다. TOW는 2,000m를 비행하는데 8.6秒를 필요로 한다.

소聯의 100mm戰車砲彈으로는 같은 거리를 비행하는 時間은 3秒이내이고 TOW와 應戰시키면 지게된다. 1,500m 이내에서는 戰車砲가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같은 상태에서 레이저目標指示 Team에 대하여 생각하면 발견은 곤란하다.

레이저光線은 그 照射도 彈의 彈着數秒前으로 좋다.

砲射火砲의 위치는 목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戰車砲는 誘導砲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敵砲兵의 對砲兵射擊 또는 支援航空攻擊이 유효하다고하나 공격중에 敵의 機甲部隊側에서는 레이저誘導砲彈을 발사하는 美軍砲列의 위치를 신속히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CLGP는 분명히 공격에 있어 큰 價値가 있다. 1發당 Copperhead는 상당히 高價이다. 1976年에는 155mm M712는 1發당 8,791弗이었다. 그러나 戰車를 비롯하여 他의 중요목표를 순간적으로 파괴하는 威力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종래의 砲兵攻擊에서는 靜目標에 대해 1發의 명중을 위해 20發 또는 그 이상의 發射彈數를 필요로 했다. 사격시간의 절약과砲腔의 간소에 의해 Copperhead는 저렴하다고 하겠다.

이 외에 主要한 전보는 砲彈에 子彈技法에 채용이다. 즉 종래의 彈皮를 運搬具로 생각하여 수개의 子彈을 운반하고 그自身에게 파괴력을 갖게 하는 方法이다.

火砲에서의 照準, 裝填, 發射는 번합이 없고 所要의 목표지역에 달하였을때 母彈을 低威力炸藥으로 파괴하고 子彈을 散布한다.

子彈은 목표지역에 發射散布하여 목표에命中시켜 파괴한다. 子彈方式은 在來砲彈보다 넓은 지역에 効力を 미칠수가 있다. 예를들어 155mm M483 A1라는 ICM(改良彈)에서는 88개의 子彈이 收容되고 그 각個로서 對人手榴彈에 상당하는 위력이 있고 순간적으로 少數彈으로 넓은 地域에 濃密散布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1次 완성된 이 技法은 子彈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이 用法에 例로서 子彈을 成形炸藥彈으로 하고 戰車나 APC의 上部薄裝甲部를 공격하거나 이것을 各種化學彈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母子彈의 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障害地帶를 구성하고 遠隔操作에 의해 작동시켜 敵에 행동과 戰意를 감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集束彈 技法은 砲兵에 對人 또는 戰車地雷를 敵地에 산포한다는 방법은 가능하게 했다. 砲兵에 散布地雷는 순간적으로 敵陣內에 강속히 地

雷原을 형성시켜 敵으로 하여금 그것을 除去할 여고 하면 다시 간단하게 地雷原을 만들 수 있는 까다로운 존재이다.

師團砲兵과 軍砲兵의 유효사격에 의해 最前線에 후방 20,000m까지 地雷原設置가 가능하다. 敵으로서는 아무런 짐새도 없이 地雷原이 散布되고 마는것이다. 또한 敵은 우리砲兵의 사정내에 후방 중요지역에 地雷原이 布設되어 있지않나 하는 憶測을 자아내게 한다. 地雷原은 또한 敵을 공격하는 前方과 약점이 되는 翼側을 防護하기 위한 교통의 要衝, 또는 보급과 증원에서 前方의 敵을 고립시키기 위해 布設한다.

이 砲兵設置에 地雷原은 신속히 所要地域에 설치를 결정하고 數分내에 완성할 수 있다. 그 설치는 아무런 妨害를 받지도 않고 설치의 위치는 정확하고 氣候, 曙夜에 구별없이 실행가능하다 한변 설치되면 地雷原은 오래도록 유지가 가능하다.

地雷原 설치는 敵前進部隊의 滞止에도 이용된다. 敵이 당황하여 地雷原 통과를 위하여 開路를 만들었다 하드래도 地雷原은 수분간에 다시 설치가 가능하다. 破片彈 또는 對人用 集束彈에 의한 地雷原의 除去에는 상당한 시간과 쓸데없는 經費가 든다.

機甲部隊가 砲兵設置의 地雷原에 진입한다는 상태를 想像을 해보자. 먼저 약간의 偵察隊가 縱隊의 전방을 전진하고 本隊의 수천m에 前進路는 이상없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縱隊가 전진하면 戰車와 APC는 전진하는 數分前에 美軍의 砲擊에 의한 地雷原에 돌입한다. 전진한 車輛은 車體가 파괴당하는 참사를 遭遇한다.

이러한 상태보다 더욱 不愉快한 일이 한두가지 있다. 먼저 電擊行進이 정지된다. 步兵은 下車당하고 地雷原 제거를 위한 工兵이 소집된다. 이 作業中의 砲兵의 援亂射擊은 다수에 손해를 주고 地雷原에 유지를 위해 새로운 地雷를 投射한다. 가령 敵의 후방에서 地雷處理에 특별기재를 가지고서도 그것은 縱隊의 후방에 설치된 새로운 地雷原에 뛰어드는 것이 된다.

電擊을 위해 忽連行進이 천천히 행진하게 된다. 이 행진을 본 裝甲車輛群은 절호의 목표가

된다. TOW로 武裝한 헬리콥터는 이것을 목표로 集中하고, 레이저指示器를 장비한 헬기로 도착, CLGP彈도 精度로 戰車攻擊을 개시한다. 敵의 공격은 우리步兵과 戰車部隊와 교전도 하기 전에 粉碎된다.

砲兵의 地雷散布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射程範圍內의 全砲兵部隊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격을 加하여 과거해 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散布된 地雷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

砲兵散布의 地雷原의 전개는 美軍砲兵이 敵행진을 滞止시키고 지체시키는 능력을 부여시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敌의 공격을 다만 연속적으로 砲擊을 함으로써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效果는 있었으나 이러한 防禦는 한도가 있다.

만약에 敌의 재능이 있으면 몇개의 要點에 동시공격을 加해突破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砲兵散布地雷는 敌의 돌파를 저지하고 침입하는 敵部隊를 교란시키거나 지체시키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증진시킨다.

새로운 砲兵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敌의 중요목표를 신속히 발견하고 식별하여 照射를 정확히 하는 技倆이 요구된다.

이러한 要領은 越南戰場와는 달리 困難性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는 넓은 地域에 分散하고 차폐되어 僞裝된 목표를 발견하는 일이다. 대개의 경우 敌은 우리편에 接觸은 극력 회피하려고 한다. 문제는 乾草를 쌓은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재차 같은 戰鬪를 하여도 동일한 일을 하여서는 않된다.

歐洲中部에 있어 NATO 바르샤바協定이 결렬될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 고립되고 차폐된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다수의 목표를 如何히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軍은 새로운 目標設定能力을 개발하고 있다. 매력은 없으나 가장 重要한 것은 對砲 및 對迫례이다. 이들의 레이다는 敌의 砲彈, 로켓 및 迫擊砲彈이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追尾하여 그 弹道를 결정한다.

레이이다가 弹道를 追尾한 諸元은 시시각각 計算盤으로 보내져 敌砲彈이 또 날아오는 중에도 즉각 敌의 砲列를 算出할 수 있으며 高精度로 반

격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이 種類의 研究는 행해졌으나 레이다의 性能과 結果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레이다는 마이크로電子工學 및 디지털計算機의 進步를 이용하여 初期設計의 제문제가 해결되었는 것이다.

對砲레이이다 AN/TPQ37 및 對迫례이다 AN/TPQ36 두 가지의 레이다가 量產의 初期에 있다. 이것이 展開되며는 목표선정과 對砲射擊能力은 현저히 向上되고 우세한 敌의 火砲와 迫擊砲의 수량에 우위를 相殺할 수 있다.

다음에 레이다의 開發으로서는 敌의 집단이동을 신속히 發見하고 경보하는 것이 있다. SOTAS(遠隔目標發見機構)는 상당히 큰 레이다시스템으로 2機의 헬리콥터에 나누어 積載시키고 있다. 高精度로서 敌地域內에 깊숙히 있는 이동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레이이다의 레이다는 地上局의 디지탈로서 보내어 온다. 地上局은 즉시 이것을 地圖座標로 바꾸고 敌部隊에게 砲擊과 航空攻擊을 가능하게 한다.

裝置는 曙夜를 막론하고 연기, 안개 등 惡天候에서도 操作 가능하다. 이 헬리콥터는 敌의 A-AAG(高射砲)와 SAM의 射程外에서 행동할 수 있다.

한組의 SOTAS는 敌地의 넓은 地域을 감시할 수 있고 西獨에 國境부근에서 原型試作品을 敌陣地 探知테스트를 하고 설계대로 作動할 수 있는 것이 實證되었다. 이것이 展開되며는 砲兵의 목표선정 능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戰術上에 중요한 情報源을 제공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目標捕捉에 현저한 진척을 보인 陸軍의 小型 RPV(遠隔操縱機)가 있다.

RPV는 小型으로 無人의 地上局에서 遠隔操縱되는 航空機 또는 헬리콥터이다.

TV시스템을 裝備하고 空中에서 포착된 影像을 즉시 地上局의 스크린에 비추고 그에 따라 地上의 操作員에게 RPV를 操縱시킬 수 있고, 또 스크린에 나타난 諸元에 따라 戰術的으로 각종 결심을 하는 資料를 제공하여 준다.

만약 RPV의 센서에 레이저指示器를 併置하면 스크린에 나타난 목표를 레이저誘導砲彈에

공격을 위한 指示를 할 수 있다.

原型試作品은 RPV에 의해 레이저照射된 戰車에 대한 CLGP의 試射성공으로 그 능력이 실증되고 있다. 作戰用 RPV는 더욱 高度된 低照度用 TV나 FLIR(前方監視赤外線裝置)를 장비하고 曝夜의 구별없이 목표를 발견할 것이다.

RPV은 小型으로 이동이 자유로우며 敵을 발견하기 곤란할 것이다. 重量은 필요한 사용거리와 能力에 따라 25~수백 파운드에 범위가 가능하다.

또한 地上裝置로 効率의이며 사용에 적합하고 用法에 따라 多目的인 면에 幾種의 形式에 RPV를 운용한다.

陸軍의 "RPV는 견고하고 信賴性이 높고 戰場에서 野戰部隊와 같이 이동이 가능하여야만 한다. 滑走路는 필요없고 各種地形에서도 간단하게 발사와 회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현재에 原型試作品을 보면 트럭에 搭載한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휴대 가능한 特殊 Net(網)시스템으로回收가 되는 것을 實證하였다.

장래에 기대되는 能力은 여러가지 있으나 戰術的 RPV는 大量된 檢知裝置, バタ傳達裝置 및 推進裝置에 의해 포착, 식별 및 목표지시로 砲兵攻擊의 効率增大에 이용된다.

이 외에 戰術情報와 목표포착의 중요한 수단은 遠隔檢知器 또는 敵의 진입발견장치이다. 이 장치는 敵에 車輛 또는 人員에 존재와 통과능력을 포착하여 그 데타를 遠隔한 管制 및 監視局에 전달한다. 각자 종류에 探知器가 개발되어 地震計式, 磁場變化式, 手動赤外線方式, 電子式 및 불필요한 輻射波의 탐지기 등이 있다.

探知器는 여러가지로 組合되어 우리領域에 대한 進入을 발견, 감시하고 식별할 수 있다. 射擊에 필요한 標定의 精度는 良好하고 榴彈, 發煙彈, 榴散彈, 地雷散布彈등 在來彈으로 목표지역 사격에 적합하다. 이러한 セン서는 1960年代에 개발되어 월남戰爭에 실용화되었다.

電子構成品에 小型화와 擊고화에 성공하여 敵에 進入探知器를 母子彈方式을 이용하여 砲彈으로 散布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타에 火砲도 投射할 수 없는 探知器는 RPV에 의해 散布된다.

砲兵部隊에 의해 신속히 敵에 進入探知器로

散布하는 능력이 부여된 것은 새로운火力에 의한 偵察手段이 加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砲兵에 사격 목표를 探知標定하는 새로운 수단이 부여되고 戰術情報は 敵의 기습공격을 방지하고 우리 賽側을 방호함과 동시에 敵에 連絡中樞등 취약부분에 空地에서 적시에 공격을 加하여 큰 損害를 주게끔 된다.

이러한 劃期의 砲兵用法에는 한가지 不利한 효과를 가져왔다. 즉 생각지 않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점이다. 만약 敵의 指揮官이 中央突破하는 것과 急速한 진격을 계획할 때는 먼저 美軍師團砲兵과 軍砲兵를 사격할 것이다. 우리 射擊部隊는 명렬한 敵의 포격과 공습을 받게된다.

現在 歐洲에 있어서 우리砲兵은 소聯砲兵에 대하여 1대 3에 劣勢이다. 또한 소聯空軍은 필요에 따라 급속히, 量質과 함께 우수하다. 이 威脅에 대하여 대항하는 수단으로서는 신속히 火器를 更新하고 對低空火力防禦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歐洲에 있어 美側의 師團砲兵은 모든 自走砲를 갖추고 있다. 이 機動力を 이용하여 아예 敵의 행동을 참작하여 준비한 陣地에 기민하게 陣地變換할 수 있다.

M109A1 自走榴彈砲는 輕裝甲이 되고 砲手와 火砲는 砲彈에 파편 및 航空機에서의 총탄에 대해 방호되고 있지만 8인치 榴彈砲로는 Driver를 제외하면 砲와 人員은 전부 노출되고 있다.

이것은 遠距離 射擊火砲 이외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결함이다. 현재 M110A1用에 파편 및 충격에 대한 火砲와 砲手의 방호를 위하여 輕裝甲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의 火器는 기동성을 적극 이용함과 동시에 어느정도의 방호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敵砲擊에 効力を 감소시키고, 한편 새로운 弹과 진보된 目標 標定技術은 對砲兵火力의 효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새로운 砲彈과 관측능력의 효과가 砲兵의 조직 또는 戰術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評價하여야만 되는지 모르겠다. 改良彈(ICM)에 새로운 火砲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종래의 火砲에 적합하게 設計되어 있다. 새로운 능력에 主要効

果는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될 것이다

현재 155mm 榴彈砲大隊는 榴彈, 黃磷彈, 發煙彈, 照明彈, 化學彈등에 사격이 가능하다. 여기에 레이저誘導의 砲彈, 母子彈, 세서에 裝着 및 地雷原設置, 또한 정밀사격에 의해 高放射能原子砲彈에 사용에 따라 戰車破壞에 능력이 加해져 砲兵隊는 여하한 사격임무에 대하여도 요구에 응할 것이다.

1個 砲兵隊는 上述한 임무중에도 하나는 實施되지만 同時에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각種에 새로운 附加能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데는 많은 砲兵隊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美軍機械化 및 裝甲師團은 3개의 155mm 榴彈砲大隊와 1개의 175mm(또는 8인치)榴彈砲大隊를 가지고 있다. 175mm砲는 改良 8인치榴彈砲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155mm榴彈砲大隊는 通常 3개中隊編成으로 각中隊는 榴彈砲 6門을 갖는다. 重砲大隊는 4門編成의 中隊 3개에서 된다.

砲兵의 증강에 대하여는 현재의 大隊에 中隊數 증가와 中隊의 門數 증가로 행해진다. TRA DOC(陸軍訓練師團評價本部)에 의해 행해진 研究에 의하면 이 方法은 새로 大隊를 編成하는것 보다 經濟的이며 신속히 實施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즉, 155mm榴彈砲大隊에 대해 中隊裝備門數로 6門에서 8門으로, 또 中隊를 3개에서 4개로 늘리는 案이 제의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大隊當 18門에서 32門에火力이 향상되고 砲側의 兵員과 관련차량은 추가되지만 威力增加에 따른 經費로서는 가장 저렴한 價格의 方策이다.

8인치 榴彈砲 大隊를 강화하기 위하여 各中隊 2門과 第4中隊를 합치게 될것이다.

8門編成의 155mm 中隊의 출현은 歐洲戰場에 있어 획기적인 우위를 제공한다. 4門씩에 半個 中隊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有効한火力單位를 形成한다. 크게된火力의 分散은 敵의 對砲兵射擊에 대한 應戰力を 증대시킨다.

其他 砲兵이 개발중인 對裝備로서 MLRS(多聯裝로켓)의 存在가 있다. 美國은 第2次大戰 이후 환발히 로켓裝備를 개발하지 않았다.

한편 소聯軍은 第2次大戰中에 로켓彈을 광

범위하게 사용하고 능력을 유지향상 시켜왔다.

80年代 초기에 展開되는 경우에 이 로켓을 보충할 것이다. 또 다른 對開發裝備品과 組合하게 되면 砲兵로켓分野에서 우리軍은 결정적으로 우세하게 될것이다.

로켓砲兵에 큰 특색은 大火力을 집중발휘하는데 있고, 單一에 大口徑 多聯裝로켓 發射는 30秒間에 1개砲兵大隊의火力을 발휘할 수 있다.

MLRS는 이상과 같은 시스템이다. 최근 最終段階開發契約은 보오社가 Boeing 宇宙開發會社와 경쟁 落札했다. 仕樣書에는 기동성이 있고 他戰闘部隊와 동일행동이 되는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

최대의 希望距離는 30.000m이다. 한發의 230mm MLRS로켓彈의 威力은 8인치 榴彈砲砲彈에 위력을 견딜예정이다. 당초 생각된 彈頭는 對人·對物用集束彈型式에 것이다.

其他 新砲彈의 다수가 MLRS에 적용되는 것은 명확하다. 즉 레이저誘導砲彈과 地雷散布彈 등은 명확한例이다.

MLRS를 장비한 大隊에 잠재위력은 예측치 못한 것도 있다. 大火力은 极히 短時間에 大破壞兵器가 되는 것은 MLRS가 理想의인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制式裝備에 부가되었을때 현저하게 砲兵火力에 變革을 가져올 것이다. 集約의으로 말하면 이들 새로운 砲種과 目標標定 시스템은 美軍砲兵의 위력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책상에서의 構想이 아니고 開發試驗에 있어 여러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한가지 障害가 되는 것이 있다. 즉 ICBM와 巡航미사일의 時代에 있어서는 매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個個에 새로운 弹은 在來彈 보다도 高價이고 예산담당국은 “効力增進”的議論에는 귀를 기우리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新砲兵 시스템이 大量으로 전개되며는 戰車開發以來 무엇보다 陸戰에 있어 衝擊은 클것이다.

80年代에 있어 언젠가는 陸軍은 이 새로운 砲兵을 필요로 하게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ARMY 7/1980)

◆◆◆